

여성 요트동아리 참여자의 여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진영¹ · 윤지인² · 원형중³

¹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²경희대학교 교수 · ³이화여자대학교 교수

An Exploratory Study of Women's Yacht Club Leisure Experience

Joo, Jin-Young¹ · Yoon, Jee In² · Won, Hyung-Joong³

¹Ewha Womans University · ²Kyung hee University · ³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eisure experience of female college yacht club members and to explore the meaning of leisure sports club activities. Using ethnographic research method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for seven yacht club members at a woman's university in Seoul,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es, study participants perceived their yacht activity as leisure, which brings 'enjoyment', 'stress-relief', 'flow' and 'enthusiasm'. Also, the meaning of yacht club participation was about having 'collaboration', 'mental training' and 'connectedness'. Lastly, they expected to see more 'infrastructure' and 'female-oriented leisure sports clubs' as a social expectation of yacht activity in society. They believed this would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spectrum of yacht participation.

Key words : Yacht, outdoor recreation, water sports, female member

주요어 : 요트, 야외 여가활동, 해양스포츠, 여성참여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n, Jee In

E-mail: jiyoon@khu.ac.kr

Received: October, 31, 2021 Revised: December, 02, 2021 Accepted: December, 16, 20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 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환경에서 즐기기 좋은 해양 레저활동은 국민의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과 같은 긍정적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7). 해양스포츠 종목 중에서 요트는 수변 공간을 이용한 대표적인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 중 하나이다(임진선, 문보영, 2014). 요트 활동은 참여자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을 주고(임진선, 문보영, 2014), 자연 친화적 스포츠로써 참여자에게 자유로움과 모험심을 느끼게 해준다(김미량, 2009).

요트는 1930년 국내에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마리나(Marina) 건설, 각종 해양스포츠 이벤트 유치, 관련 자격증 및 스포츠 대회 개최 등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 레저활동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이근모 등, 2009; 김현준, 2021). 특히 요트는 ‘부의 상징’, ‘럭셔리’, ‘호화로움’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이근모 등, 2009; 조선일보, 2020, 10. 7). 또한 요트 참여에 대한 정보와 기술 부족,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요트에 대한 고정관념 등은 요트산업의 활성화에 제약을 만들어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이근모 등, 2009; 임진선, 2018).

요트와 관련된 여가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요트참여자의 여가촉진과 여가체험활동에 관한 연구(임진선, 조희태, 강형길, 2015), 요트참여자의 진지한 여가경험 분석 및 탐색(임진선, 2018), 기사에 나타난 요트의 상징적 의미 분석 연구(이연주, 2010) 등이 있었다. 체육학

분야에서는 요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이용식, 2011; 조우정, 2012), 엘리트 스포츠 청소년 선수 요트클럽 하위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남용진, 김찬룡, 2018)가 있었으나 주로 요트선수, 경기력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요트 참여자들에 대한 여가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김미량, 2009).

해양스포츠 문화에 관련된 장승현, 이근모(2010)의 연구에 따르면 요트 동호회는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요트 동호인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 10대 1에서 5대 1정도로 성비 격차가 줄어들었으나(조선일보, 2020, 10. 7),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요트동아리 활동의 의미와 그들의 여가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장민기, 이근모 및 장승현(2019)은 여성 스포츠 동호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장벽에 대해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인 암벽등반 동호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중심의 체제에서 여성 동호인들이 성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소수자로서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조영미, 2011). 또한, 아이스하키 관련 연구에서는 여성이 참여하기 어려운 스포츠라는 선입견과 기회의 부족이 여가 스포츠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박두제, 원영신, 이재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요트동아리 참여자의 여가경험을 탐색하고 요트 활동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향후 요트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이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 요트 참여자들의 여가경험과 의미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해양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활성화 전략에 실무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여성 요트 동아리 참여자의 여가경험은 어떠한가?

여성 요트 동아리 참여자에게 요트 활동은 어떠한 의미인가?

여성 요트동아리 참여자는 향후 요트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는가?

터뷰가 진행되었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21년 4월 두 차례 참여관찰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줌(Zoom)으로 시간을 정해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개인면담 1회, 집단면담 총 2회에 걸쳐 각 2-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지만, 심층면담 전에 요트 소그룹 스터디나 난지 한강공원에서 요트연습을 할 때 장시간의 참여관찰과 그 후에 요트부원들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문화기술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그들의 문화, 즉 그들이 현재 속해 있는 집단 내에서의 문화행태 및 신념체계, 상호작용 등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주요한 연구내용인 동시에 결과가 된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서울의 A 여자대학교 내 요트동아리를 선정하였다. 이 동아리는 2021년 현재 46기까지의 동아리 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전통 있는 동아리로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코로나 19가 있기 전에는 재학생(YB), 졸업생(OB)으로 나누어 재학생(YB)들은 주 1, 2회 난지 요트장에서 요트를 타고 있으며, 졸업생(OB) 동아리원은 주 1회 김포에서 요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YB), 졸업생(OB) 학생들 7명을 대상으로 인

1) 심층면담

심층면담에서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우선 여가활동으로의 요트 동아리 활동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어지는 답변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면담이 진행되었다. 요트 동아리의 의미와 향후 정책적, 사회적 기대치에 관해 질문하였다. 심층면담은 주로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요트활동에 대한 생각,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과 집단 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집단면담은 정문성(2002)의 협동학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돌아가며 이야기하기’를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다.

2) 참여관찰

연구자는 동아리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관찰하기 위하여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가 직접 그 현장에 있음으로 인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O	이름	나이	동아리
1	정명화	23	3년
2	문유리	24	4년
3	양국화	25	5년
4	김재우	22	2년
5	신서래	21	1년
6	장현이	26	2년
7	이성아	22	2년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

해 그들의 행위나 말, 분위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보충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동학, 2013). 코로나 19로 참여관찰이 쉽지 않았지만, 동아리 학생들이 정부지침을 준수하며, 요트 소그룹 스터디나 난지 한강공원에서 요트연습을 할 때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요트동아리의 분위기, 요트를 타는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가입 동기나 기대하는 바, 기억에 남는 일 등을 묻고 관찰일지에 기록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위해,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다각도 분석을 활용하였다.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료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가 타당한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제별로 제대로 범주화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동료 연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다(Stainback & Stainback, 1988). 다각도 분석(triangulation)은 한 연구에 대해 연구자가 결정한 결론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 수집원을 하나 이상 갖게 되는데(장승현, 이근모, 2010),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 관찰자료, 선행연구물 등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방법 등 자료의 다각도 분석을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4. 자료처리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전사(typing)하여 녹음 파일을 텍스트(text)로 옮겼다. 연구자는 텍스트로 옮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사성과 공통적으로 묶이는 개념들을 도출하여 코드화(coding)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미를 찾아 부호화, 범주화하는 과정

을 거쳤다(Spradley, 1980). 그리고 범주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에 적용 하였다. 문화기술적 분석은 우선 문화적 의미의 ‘부분’ 혹은 ‘요소’를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 조직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김동환, 김동학,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Spradley(1980)의 문화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영역분석을 실시하고, 분류분석, 성분분석, 주제분석 순으로 수행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여성 요트동아리 참여자의 여가경험

1) 즐거움과 긴장해소

연구 참여자들은 요트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가를 통한 즐거운 경험, 기쁨, 스트레스 및 긴장을 해소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여 요트라는 여가활동을 통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학교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다소 단절되었는데, 요트 참여를 통하여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대학생들이 스포츠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여가생활 및 대학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김세웅, 2010). 허태균(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여가경험이 제공하는 ‘즐거움’, ‘유익성’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안창규(1999)의 연구에서 여가경험을 통한 즐거움 지향은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관여를 촉진 시켜준다고 설명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첫날 교육을 할 때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요트를 타면 안 되는 날인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코치님께서 동행 하에 요트를 타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배를 너무 재미있게 탄 거예요. 벌벌 떨면서도 우리 요트부에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요트 타면서 했다가요(김재우)”.

“현재 대학생인 저에게 요트란 대학생들의 전부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색다른 경험인데, 이거는 대학생 때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트라는 게 평생 취미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취미를 얻었다는데 정말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오래 산다 해서 평생 취미라고 생각이 들 만한 취미를 찾기 힘든데, 그걸 대학시절에 찾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죠(문유리)”.

“어느 정도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균형(balance)을 맞추려면 여가시간 안에서 여가도 비중 있게 두고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할 때 즐거운지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평생 취미를 찾은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평생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벌써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장현이, 관찰일지)”.

“원래 물에서 하는 거는 다 좋아하는 편인데 요트도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너무 재미있어요! 물에서 요트를 타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요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해요(이성아)”.

연구 참여자들에게 요트 활동은 평생의 여가 활동이자 중요한 취미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현대인들에게 여가시간과 일의 균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었으며, 현대인에게 여가활동 참여는 행복감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김의재, 강현욱, 2021; 이

효주, 오수연, 박성민, 2020).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낀다면, 궁극적으로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곽한병, 송민규, 안병훈, 2009).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요트 활동을 통해 즐거움, 기쁨, 긴장해소와 같은 여가로써 긍정적 가치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2) 몰입경험

여가활동에서 몰입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상태로, 자신이 하는 활동에 전적으로 몰두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상태이다(Csikszentmihalyi, 1975). 특히 해양스포츠 참여에 따른 여가몰입은 생활만족, 자아효능감 부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최정도, 문태영, 2006). 연구 참여자들도 각종 대회 준비 및 해양훈련을 통해 몰입을 경험하였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끼기도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겨울해양훈련을 가서 코치 분들께서 배타는 법을 옆에서 알려주시는데 그 때 바람이 엄청 불었었거든요. 배를 타고 있으면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의 하체가 안보이고, 허리 위부터만 보일 정도로 파도가 엄청 치는 날이었는데, 코치님이 코치를 해주시면서 이론을 많이 접목해서 알려주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이론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지금 이론에 맞게 배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때, 몰입감의 최고조와 희열을 느꼈었어요(문유리).”

“몰입은 대회 때 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고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피드 시합이다 보니까, 바람과 각도와 몸쓰는 게 딱 맞아 떨어져 최고의 스피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플레인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탄 배가 쪽 나가요. 그럴 때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몰입감은 말도 못하고 그냥 배가 내가 되고 내가 배가 되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결승선을 먼저 남들보다 들

어갈 때 제일 희열을 많이 느끼고 요트의 매력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요트의 진짜 매력은 제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이에요(양국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상황들은 다 있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극한 상황에서 요트를 타면서 자연과 내가 함께 있는 느낌은 굉장한 희열과 몰입을 느꼈어요(김재우)”.

“(요트 타는 것이)...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힘들긴 한데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매력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가장 매력적인 것은 물, 바람과 같은 자연이랑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 싸우는 느낌도 있다가 뭔가 싸우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랄까? (장현이)”.

현대인들은 도시 생활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가’를 갈망하게 된다(이종열, 이형룡, 2018). 여가를 통한 몰입경험은 여가활동 중에 발생하는 최적의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윤영선, 2010), 이동수, 권판근(2003)은 개인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 사이에서 균형적인 조화를 이룰 때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여가활동에서 몰입은 참여자에게 재미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고 긍정적인 정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Clarke & Haworth, 1994). 그 중 자연 안에서 행하는 해양스포츠와 같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참여 자체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임진선, 2018). 요트 역시 바다에서 하는 아웃도어 스포츠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자연과 동화되는 몰입경험이 여가활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3) 열정

대학생인 친구들에게 있어 대학생활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며, 특별한 경험이 없는 한 비슷한 생활패턴으로 살아가게 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요트동아리 활동이 고등학교와 비슷했을 것만 같았던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말하였다.

“요트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고등학생 때랑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트는 저에게 새로운 취미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업이 나의 열정의 전부였다면, 그 목표를 이룬 대학생활에는 사실 열정을 느낄만한 것을 찾기가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트를 타면서 내가 학업 외에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경험한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경험이고, 뿌듯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감정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크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문유리)”.

“저는 원래 성격이 매사에 열정이 부족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넘기면 대충 살자 라는 마인드가 강했는데, 요트부를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성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 수준을 넘기더라도 더! 더! 더! 높은 곳을 추구하게 되는 열정이 생겼어요. 가끔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언제 살아보겠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김재우)”.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요트를 여가로써 즐기면서 공통적으로 말한 부분은 요트를 대하는 ‘열정’이었다. 이경환, 이근모 및 임새미(2020)의 연구에서는 열정이 삶의 만족을 얻고 긍정적인 정서를 촉진하여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여가경험을 통해 무엇인가에 열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이 자체가 자신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요트 동아리 참여자들은 요트라는 여가

활동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다.

2. 요트 동아리 활동의 의미

1) 협동과 희생

동아리는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동아리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동아리 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Putnam, 2000). 또한 동아리 활동은 공동체 생활만큼 이타심, 협동심과 같은 도덕적 배움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동아리 원들은 동아리를 작은 사회로 인식하고, 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을 넘어서, 다양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2인배나, 크로저처럼 다 같이 타는 배의 경우는 팀웍(teamwork)이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어느 포지션에서 일이 딱 안 된다 싶으면 그 경기는 버린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그 팀전, 같이 타는 요트는 진짜 같이 일하는 협동심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이성아)”.

“요트부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장비가 부족한 상황도 많이 생기는데 이러면 내가 좀 희생해서 주자 이런 마음이 생긴걸 보면 희생정신이 생긴 것 같아요(정명화)”.

“요트라는 스포츠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쓰고 익스트림 해요. 그러다 보니 협동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올 수도 있고, 정말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위험한 순간도 따르는데,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트를 탄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위험해 지기 때문에 나에게 희생적인 부분이 극대화 되는 것 같아요(양국화)”.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는 다양한 인간 관계를 경험하면서 사회성 발달 및 사회화에 필요한 행동 양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우지윤, 박현권, 이혁기, 2014). 김진성, 이창섭(2011)은 소속감 및 그들만의 정체성 문화로 나타나는 ‘상호작용 요인’이 동호회 활동의 지속요인이라 언급하였고, 박상현, 권순용(2010)은 동호회 모임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 정신단련

모험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행동에 몰입하게 되며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한계의 극복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강화, 성취감 등 멘탈(mental)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얻는다(손승범, 1999).

“체력적으로도 요트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정신적으로 엄청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일 년에 공식적으로 여름, 겨울 2번 합숙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합숙훈련은 이 모든 걸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도 요트 동아리 내에서 하면서 멘탈(mental) 적으로 강해지는 계기가 되요. 요트부원끼리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요트 동아리도 했는데 다른 것 못 할게 뭐가 있냐’ 라고 말할 정도로 멘탈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문유리)”.

“체력적인 것은 물론이고 생존력이 강해졌달까? 혼자 배를 타고 나가면 정말 망망대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가 그 배를 혼자 다시 일으켜서 혼자 올라타서 육지까지 돌아와야 하는데, 내가 해상에서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돌아오지 못하는 거라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서 가야한다! 라는 생각으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강

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이성아)”.

“제가 원래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은데 요트부를 들어 와보니 요트를 들고 나르고 있더 라구요. 그 와중에 참 세상에 쉬운 건 없지만 또 못 할 거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장현이)”.

대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은 여가 선용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수준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전미순, 2015). 특히 모험적인 여가스포츠 활동은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극도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여 중요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한상덕, 2004). 요트는 해상이라는 자연환경과 기후적인 조건, 체력적인 뒷받침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모험스포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도 힘들어서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조건, 환경등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활동의 의미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소속감

참여자들의 요트동아리는 2021년 기준 46기의 신입단원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전통성을 이어 오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아리의 역사와 전통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선후배 사이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Irwin(1970)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의 스타일과 문화를 통해 하나로 결속되고, 그 집단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향유하며, 타문화와 자신들 간의 구분 짓기를 통해 응집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소속감 및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처음에 요트를 잘 못타니까 잘 타는 선배랑 같이 2-3이 타는데, 그러다보면 다른 동아리에 비해 선배들과 빠른 시간 안에 자연

스럽게 더 친해지고, 의지하고, 계속 배를 타다보면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처럼 한배를 탄 운명처럼 끈끈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장현이)”.

“물 스포츠의 특성인가 싶기도 한데, 요트가 생각보다 많이 위험해요... 그렇다 보니 엄청난 소속감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물 스포츠이면서 생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 전우애를 넘어서 가족 같은 끈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정명화)”.

“요트부와 대학의 소속감을 넘어서, 국가 대표처럼 대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다 같이 연습하는게 특별한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이성아)”.

“요트부는 현재 90학번, 91학번 선배께서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뭔가 연결고리가 끈끈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있기에 너무 든든하고, 인생선배로서 많은 가르침과 정신적인 중심을 잡아주셔서... 요트동아리에 안 들어 왔다면, 이런 인연을 못 만났을 것이고, 요트 동아리는 저에게 사람을 얻게 해준 것 같아요(양국화)”.

“요트부는 저에게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게, 가족보다 더 많이 봐요. 1주일에 8번 본 적도 있다니까요? 주말 훈련도 있고, 학교에서도 같이 공부를 한다 던지, 밥도 같이 먹거든요. 코로나가 없었던 방학 기간에는 여행도 자주 가고, 심지어 자취도 같이 하고 있어요. 동아리원 이상으로 여행메이트이자, 자매같은 사이이자 나에겐 없어서 안 될 존재들이죠(김재우)”.

조형진(2002)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을 일정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 만족과 구성원 사이에 연합의식이 높아지며 나아가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 집단 내에 공동체 의식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윤창국, 이혜선(2014)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속해온 동아

리의 역사와 고유의 문화를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 동아리원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며 공동체의 완전한 참여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식 사고의 체화’, ‘공동체 유지의 자부심과 책임감’ 등을 느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3. 요트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대

1) 인프라 확충

인프라적 측면에서 요트는 아직까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장소적인 여유나 세분화된 장비가 부족하여 접근성이 좋은 스포츠 종목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여의도뿐이고, 국내를 통틀어서는 통영, 부산 등 8개에 불과하여 요트를 탈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매일경제, 2009, 9. 10). 장비 또한 백인 남성 기준으로 배가 설계되어 있어, 동양인 여성 체격에 적합하지 않아 날이 좋지 않을 때에는 타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제약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양 여성의 체격에 맞는 요트와 장비가 좀 더 다양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넓은 한강에서 마리나가 여의도 밖에 없고, 탈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라 생각해요. 원래 난지에서도 지금 계류장보다 앞쪽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을 비우게 되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호스 같은 것도 없어서 한강에서 나와서 밭 씻을 곳 하나가 없다는게 참 안타깝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탈의실도 없어서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면서 너무 환경이 열악한게 많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문유리)”

“배가 뒤집히는 걸 캡사이즈(capsize) 라고 하는데 그걸 복원할 때 엄청난 힘이 들어가요. 팔에 멍이 많이 드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요트가 백인 남성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양 여자몸무게로 배를 복원하려면 그만큼 엄청난 힘이 들거든요. 동양 여자기준으

로 배가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김제우)”.

“저는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여자경기가 따로 없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여자랑 남자랑 체력적이나 체격적으로 다른데 같이 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여성의 참여가 많지 않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래에는 이런 체계가 잘 잡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양국화)”.

타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박범서(2021)는 패러글라이딩 종목은 연습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함이 여가 스포츠로서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설명하였고, 김미향, 한성희(2016)는 승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및 선진 사례를 통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였다.

2) 여성참여 확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고 보편화 되었다고 하지만, 특정 종목들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요트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장승현, 이근모, 2010).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크루저 요트 동호회가 남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번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별히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인기 종목과 관련하여 향후 여성으로 이루어진 동아리나 동호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술하였다.

“다른 동아리를 보면 남초 분위기가 강해요. 여자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뜻 동아리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양훈련도 합숙하고, 붙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남자라면 힘들지 않을까, 저희 동아리처럼 전부다 여성으로 구

성된 모임이 있다면 여성요트인의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정명화)”.

“요트연습을 할 때 보면 다른 대학은 혼성이다 보니까 대부분 힘이 드는 일들을 남자가 하더라고요. 무거운 짐, 장비를 옮기는 일들...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것이 요트부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여성들로만 구성된 집단에 속해있으면 요트의 모든 것을 좀 더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신서래)”.

스포츠에서 성별에 따른 선입견과 여성의 소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최영금, 2012), 여성의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는 사회적 연결망 형성과 여성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혁기, 송은주, 임수원, 2006). 박두제 등(2013)은 남성성이 강한 종목인 아이스하키 동호회 활동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기규칙 마련 등의 운영방식의 개발이 아이스하키의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요트동아리 활동 참여자의 여가경험을 탐색하고, 그들에게 동아리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이 향후 요트활동을 위하여 어떠한 사회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7명의 여성 요트동아리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요트동아리 참여자의 여가경험은 ‘즐거움과 긴장해소’, ‘몰입경험’, ‘열정’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적인 여가활동보다 신체적 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요트를 통한 여가활동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과 몰입의 순간을 통해 활동 자체

에 흥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요트동아리 참여자들의 여가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요트동아리 참여자의 동아리활동의 의미는 ‘협동과 희생’을 배우는 배움터이자, ‘정신 단련’, ‘소속감’을 갖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 간의 독특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팀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는 요트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성을 체화하며 그들의 삶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향후 여성 요트인 참여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여가스포츠로서 요트의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였다. 여성 요트인의 유입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호회나 동아리를 대신하여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동아리와 동호회의 활성화가 환경적 제약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요트 동아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동아리,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가경험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여가스포츠 동아리 안에서 여성 뿐만 아니라 소수의 입장에 있는 다양한 여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학(2013). 체육대학 교육경험을 통한 체육전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동환, 김동학(2015). 체육대학 스포츠동아리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4(2), 177-193.

- 김미량(2009). 요트참가자들의 기본심리욕구와 운동 참가동기 및 지속적 참여 의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콘텐츠학회지*, 9(9), 423-431.
- 김세웅(2010). 사회체육활동으로서의 대학생의 스포츠동아리 참여가 대인관계만족과 대학생 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 887-897.
- 김미향, 한성희(2016). 한영 승마 현황 분석 및 레저 승마 활성화 방안 탐색. *관광레저연구*, 28(4), 73-92.
- 김의재, 강현욱(2021). 한국 노동자의 여가생활 만족도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30(3), 215-223.
- 김진성, 이창섭(2011). 마스터즈 수영 동호인의 운동지속과 동호회 운영 특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4), 47-73.
- 김현준(2021). 자아일치성과 여가계약이 요트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선망과 회복탄력성의 매개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곽한병, 송민규, 안병훈(2009). 스포츠 참여자의 참가동기에 따른 몰입경험이 웰니스 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피싱학회지*, 1(1), 1-15.
- 남용진, 김찬룡(2018). 유소년요트클럽의 하위문화 특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4), 21-42.
- 매일경제(2009.9.10). 마리나항구 27개 확대, 요트 접안 쉽도록 어항규제도 완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09/09/477347/>
- 박두제, 원영신, 이재희(2013). 여성 아이스하키 동호인의 경기 참여 촉진을 위한 실행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2), 127-144.
- 박범서(2021). 한국 패러글라이딩 역사와 발전방안 사례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박상현, 권순용(2010).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9(4), 57-78.
- 손승범(1999).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인지기량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안창규(1999). 스포츠 소비자의 참여동기와 스포츠 관여와의 상호관계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3), 846-856.
- 우지윤, 박현권, 이혁기(2014). 대학 스포츠동아리 참여재미, 지각된 친구관계 질, 대학생활만족간의 가설적 인과모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 581-593.
- 윤영선(2010). 패러글라이딩 참여자의 여가몰입이 여가정체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195-204.
- 윤창국, 이해선(2014).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참여를 통해 본 공동체 진입과정의 의미 탐색. *한국평생교육학회지*, 20(4), 81-113.
- 이근모, 윤이중, 강효민, 이재형, 이남미, 이현미(2009).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인식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8(6), 111-124.
- 이경환, 이근모, 임새미(2020). 탁구동호인의 재미요인, 운동열정 및 긍정심리자본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1, 177-191.
- 이동수, 권판근(2003).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여가만족도, 여가몰입도 및 고독감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3), 227-238.
- 이연주. (2010). 신문기사에 나타난 요트의 상징적 의미.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1), 125-135.
- 이용식(2011). 요트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8, 75-90.
- 이종열, 이형룡(2018).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의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42(10), 135-155.
- 이혁기, 송은주, 임수원(2006). 기혼여성 축구동호인 하위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95-100.
- 이효주, 오수연, 박성민(2020). 기혼 여성근로자의

- 삶의 질에 관한 비교 연구: 여가 및 직장생활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2(3), 571-609.
- 임진선(2018). 요트참여자들의 진지한 여가경험 과정분석과 그 의미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1), 25-38.
- 임진선, 문보영(2014). 연구논문: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체험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요트 참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8(1), 99-116.
- 임진선, 조희태, 강형길(2015). 요트참여자의 여가축진이 여가체험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9(1), 34-43.
- 장민기, 이근모, 장승현(2019). 대학여자축구동아리 성장기: 동아리 결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1), 35-46.
- 장승현, 서미아(2010). 크루저요트 동호인 하위문화의 수직적/수평적 구성원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2), 117-134.
- 장승현, 이근모(2010). 크루저요트 동호인의 하위문화 특성 : 구성원 특성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9, 35-50.
- 전미순(2015).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만족과 정신건강. **다문화건강학회지**, 5(1), 33-39.
- 정문성(2002).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 조선일보(2020.10.7). **강경화 남편 계기로 본 '요트의 세계' 말린다고 말려질 바람일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69294>
- 조우정(2012). 요트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및 인식도 조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6(5), 401-407.
- 조영미(2011). **암벽등반 동호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조형진(2002). **청소년의 유도 참가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최영금(2012).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 여성 스포츠**.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최정도, 문태영(2006).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몰입과 생활만족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3), 191-202.
- 한상덕(2004). 모험 스포츠 동호인들의 참가동기가 몰입경험 및 스포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2, 889-899.
- 허태균(2004). 여가경험의 지각조건과 심리적 요인. **여가학연구**, 1(3), 73-87.
- 해양수산부(2007).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 서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Clarke, S. G., & Haworth, J. T.(1994). Flow experience in the daily lives of sixth-form collect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5, 511-523.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Irwin, J.(1970). *Notes on the status of the concept subculture in Gelder & Thornton(eds.)*, The Subcultural Reader, Routledge: London & New York: The Subcultural Reader, Routledge.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Culture and Politics*, 223-234.
- Spradle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tainback, S., & Stainback, W.(1988). *Understanding and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Dubuque, IA: Kendall/Hunt